



‘외상 인터벤션’ 특별호 발간에 부쳐

전웅배 (인터벤션 특별호 초청 편집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외상 치료는 전통적으로 외과 의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외상 환자의 치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치료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알려져 외상 센터에서의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상 환자에서 인터벤션은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혈류역동학적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거나, 수술적 치료의 중간 단계로서, 때로는 수술을 대체하는 최종 치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호는 외상 인터벤션의 다양한 주제들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1) 외상센터에서의 인터벤션 의사의 역할(Role of interventional radiologist in trauma center),
- 2) 두경부 외상의 인터벤션(Interventional radiology in head and neck trauma),
- 3) 흉부 및 대혈관 외상의 인터벤션(Interventional radiology in thoracic trauma),
- 4) 복부 외상의 인터벤션(Interventional radiology in abdominal trauma),
- 5) 골반외상의 인터벤션(Interventional radiology in pelvic trauma),
- 6) 사지외상의 인터벤션(Interventional radiology in extremity trauma).

이번 특별호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외상 치료의 현황과 인터벤션 의사의 역할, 그리고 각 장기 손상을 가진 외상 환자의 인터벤션 치료에 대해 탁월한 전문가들이 저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외상 환자 치료 및 외상 인터벤션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주제의 종설을 훌륭하게 작성해 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